

KOSDAQ | 반도체와반도체장비

뉴파워프라즈마 (144960)

국내를 넘어 해외가 이끄는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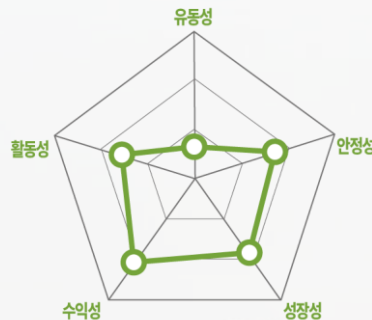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반도체 고객사 CAPA 투자 및 공정 미세화에 따른 동사 RPS 수요 증가 전망. 별도 기준 반도체향 매출 비중 약 80%로 삼성전자 등 국내 메모리 CAPA 사이클 민감도 높음
- 해외 고객사 매출 확대 추세. RPS는 한 번 채택되면 반복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로, 해외 고객사 다변화는 안정적인 교체 수요 확대를 의미
- 2026년 연결 매출액 7,055억원(+22.1% YoY), 영업이익 682억원(+137.8% YoY) 전망. 반도체 및 기타 1,974억원(+29.6% YoY), 방산 3,201억원(+13.3% YoY), UTG 1,880억원(+34.5% YoY)이 실적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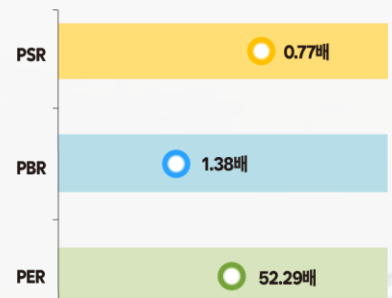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1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뉴파워프라즈마 (144960)

Analyst 박성순 sspark@kirs.or.kr

RA 김지은 jekim0216@kirs.or.kr

KOSDAQ

반도체와반도체장비

반도체 플라즈마 장비 업체

뉴파워프라즈마는 1993년에 설립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주요 사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박막공정과 식각공정 장비에서 사용되는 RPS, RFS, PPS 등이 있음. 자회사 스페이스프로에서 복합소재, 도우인시스에서 UTG를 생산. 2025년 기준 매출 비중은 Cleaning System 19.7%, RFS 2.4%, 방산 48.9%, UTG 24.2%, 기타 4.8%를 기록

고객사 CAPA 투자와 미세화 전환 수혜

고객사 CAPA 투자에 따른 동사 장비 수요 증가가 예상. 동사는 별도 기준 반도체향 매출 비중이 약 80%이며, 반도체 매출 중에서도 엔드 고객 기준 삼성전자향 비중이 높아 국내 메모리 CAPA 투자 사이클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편. 공정 미세화도 RPS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또한 해외 고객사 매출이 확대 추세. RPS는 제품이 한 번 채택되면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 해외 고객사 다변화는 안정적인 교체 수요의 확대를 의미

해외 고객사 매출 확대와 자회사 개선 기대되는 2026년

2026년 매출액 7,055억원(+22.1% YoY), 영업이익 682억원(+137.8% YoY)을 전망. 부문별로는 반도체 및 기타 1,974억원(+29.6% YoY), 방산 3,201억원(+13.3% YoY), UTG 1,880억원(+34.5% YoY)을 예상. 반도체 고객사들의 CAPA 투자와 반도체 공정 미세화 및 선단 공정 비중 확대에 따른 플라즈마 수요 증가 전망. 스페이스프로는 방산 시장 성장에 따라 복합소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도우인시스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주요 고객사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외판 확대로 매출액 확대를 이룰 것으로 예상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3,529	3,507	5,198	5,780	7,055
YoY(%)	13.8	-0.6	48.2	11.2	22.1
영업이익(억원)	141	161	261	287	682
OP 마진(%)	4.0	4.6	5.0	5.0	9.7
지배주주순이익(억원)	256	193	215	85	392
EPS(원)	585	441	491	195	898
YoY(%)	101	-24.6	11.4	-60.3	360.1
PER(배)	61	11.9	9.0	26.5	11.8
PSR(배)	0.4	0.7	0.4	0.4	0.7
EV/EBITDA(배)	8.5	10.2	6.7	6.9	6.8
PBR(배)	0.7	0.9	0.7	0.8	1.4
ROE(%)	11.8	8.2	8.5	3.1	12.9
배당수익률(%)	1.4	1.0	1.1	1.0	0.5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가(08/07)	10,580원
52주 최고가	11,630원
52주 최저가	4,760원
KOSDAQ(08/07)	798.81p
자본금	44억원
시가총액	4,623억원
액면가	100원
발행주식수	44백만주
평균거래량(60일)	144만주
평균거래대금(60일)	139억원
외국인지분율	70.3%
주요주주	최대규 외 4인 33.92%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5.7	75.2	95.2
상대주가	30.8	137.0	96.9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EBITDA마진율',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 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뉴파워프라즈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플라즈마 부품 제조 기업

**1993년 설립돼 2016년 코스닥
상장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용
플라즈마 핵심부품 제조 기업**

뉴파워프라즈마는 1993년 12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장비에 사용되는 플라즈마 핵심부품의 개발·제조를 목적으로 최대규 회장이 뉴파워라는 상호로 설립한 회사이다. 설립 초기부터 플라즈마 발생에 필요한 고주파 전원장치(RF Generator)와 임피던스 정합장치(Matcher)의 국산화에 주력해, 1994년 RF Generator와 아날로그 매처, 1997년 디지털 매처와 디지털 RF Generator를 국산화했다. 1998년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연구개발 체계를 갖췄으며, 1999년 10월 (주)뉴파워프라즈마로 법인을 전환하고 같은 달 벤처기업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6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동사는 설립 초기 RF 전원장치와 매처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해, 이후 플라즈마 발생장치 자체로 제품 영역을 확장했다. 2002년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의 박막·확산 공정에서 잔존 부산물을 제거하는 리모트 플라즈마 발생장치(RPG)를 개발했으며, 이를 삼성전자·SK하이닉스·원익PS·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 반도체 소자·장비업체에 공급하며 거래 관계를 구축했다. 2005년에는 LCD용 대용량 RF Generator와 소프트 에처(Soft Etcher)용 플라즈마 소스를 개발하며 디스플레이 공정 영역으로 적용처를 넓혔고, 2011년 AMAT의 공급업체 승인을 획득하며 해외 고객 기반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2020년 스페이스프로, 2024년 도우인시스를 종속회사로 편입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생산 기반 측면에서 동사는 2010년 전주공장과 2011년 오산사업장을 가동한 데 이어, 2020년 본점을 수원 고색사업장으로 이전했으며 2023년 마곡신기술센터를 개소했다. 해외에서는 2013년 중국 쑤저우·시안에 고객지원 사무소를, 2014년 중국 상해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대응 거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으로 선정됐고, 2024년 5천만불·2025년 7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장비용 플라즈마 핵심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연혁

1993~2005	2006~2014	2015~
1993.12.07 뉴파워 설립 1994.07 TRANS FET 방식 RF GENERATOR 국산화 1994.09 ANALOG AUTO MATCHER 국산화 1997.02 DIGITAL AUTO MATCHER 국산화 1997.08 DIGITAL RF GENERATOR 국산화 1998.06 뉴파워 기술연구소 설립 1999.10 (주)뉴파워프라즈마 설립(법인전환) 1999.10 벤처기업 지정(기술연구 개발) 1999.12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지정(중소기업청) 2000.08 ISO9001 인증 2001.05 유망신기술기업 지정(중소기업청) 2002.05 RPG(REMOTE PLASMA GENERATOR) 개발 2003.06 NTJEM MARK 획득 2003.11 2003 신기술실용화 유공자 산업포장 수상 2004.01 2003년 한국 10대 신기술 선정 2004.07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2005.04 LCD용 대용량 RF GENERATOR 개발 2005.07 SOFT ETCHER용 PLASMA SOURCE 개발 2005.11 신기술 실용화 유공기업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06.10 제2회 대한민국반도체기술대상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2006.10 제10회 벤처기업대상 중소기업청장 표창 수상 2007.01 제3회 대한민국 반도체대상 전경련 회장상 수상 2008.09 ISO14001 인증 2010.01 전주공장 OPEN 2011.03 오산사업장 OPEN 2011.11 Applied Materials(AMAT) Audit 승인(공급업체 등록) 2012.09 생산성향상 우수기업 지정(지식경제부) 2013.08 중국 CJS사무소 OPEN(쑤저우) 2013.11 중국 CJS사무소 OPEN(시안) 2014.01 위순임 대표이사 취임 2014.03 중국(상해)법인설립 2014.12 제9회 이월의 산업기술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 2014.12 경기벤처기업인인날 중소기업청장 표창 수상	2015.07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지정 2015.10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2015.11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GGWP)인증 2016.11 마이스터고 일류화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 2016.11 KOSDAQ 시장 상장 2016.12 벤처활성화 유공표상 대통령령상 수상 2017.09 자회사 (주)에이씨에스이와의 소규모 합병 완료 2018.03 제 52회 납세자의 날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수상 2020.01 고색사업장으로 본점 이전 2020.12 주식회사 스페이스프로 종속회사 편입 2023.03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2023.04 마곡신기술센터 OPEN 2024.01 중앙평가센터 OPEN 2024.01 주식회사 도우인시스 종속회사 편입 2024.08 양재영 대표이사 취임 2024.12 5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25.12 7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자료: 뉴파워프라즈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종속회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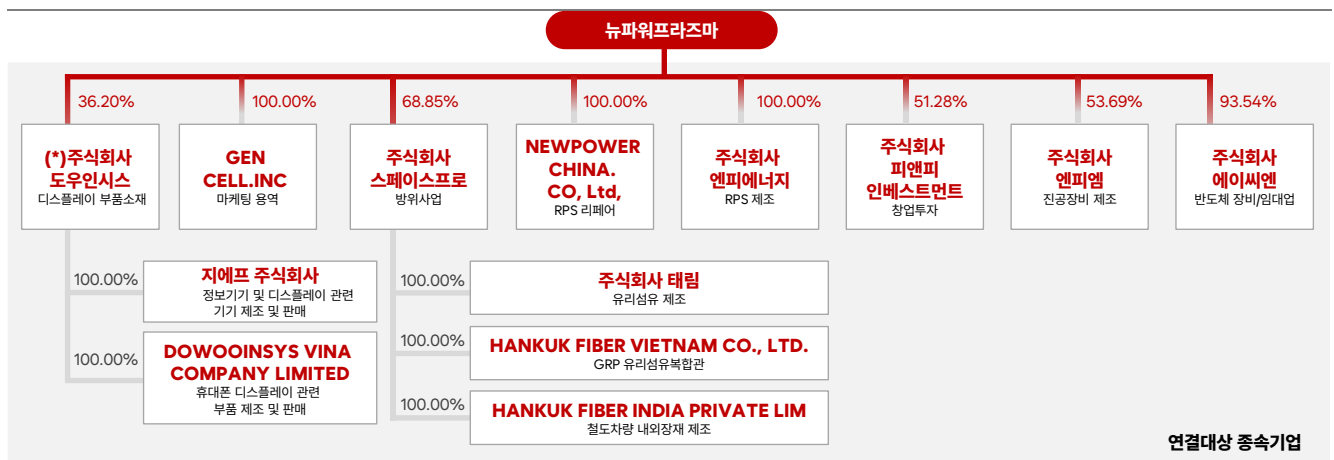
2026년 1분기 기준 총 13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보유

2026년 1분기 기준 뉴파워프라즈마는 13개(상장사 1개, 비상장사 12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용 플라즈마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종속회사별로 보면, (주)스페이스프로는 2020년 12월 편입한 방위산업 전문 종속회사로, 1Q26 기준 지분율은 68.85%, 자산총액은 4,635억원이다. 경상남도 밀양에 소재하며 복합재 방탄헬멧 등 방산 복합소재를 제조하고 있다. 산하에 유리섬유를 생산하는 (주)태림과 복합소재를 제조하는 베트남·인도 법인 HANKUK FIBER VIETNAM·HANKUK FIBER INDIA를 각각 지분 100%로 보유하고 있으며, 1Q26 기준 세 법인의 자산총액은 각각 320억원, 12억원, 49억원이다. (주)도우인시스(08/07 종가 기준 시가총액 1,877억 원)는 2024년 1월 편입한 상장 종속회사로, 1Q26 기준 지분율은 36.20%, 자산총액은 2,303억원이다. 충청북도 청주 소재로 폴더블 스마트폰용 초박형 강화유리를 제조하고 있으며, 지분율이 과반에 미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을 고려한 실질지배력을 근거로 연결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산하에 초박형 강화유리를 제조하는 베트남 법인 DOWOINSYS VINA와 디스플레이 관련 기기를 제조하는 지에프(주)를 각각 지분 100%로 보유하고 있으며, 1Q26 기준 두 법인의 자산총액은 각각 1,338억원, 80억원이다.

이 외 종속회사로는 반도체 장비 제조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에이씨엔이 있으며, 1Q26 기준 지분율은 93.54%, 자산총액은 455억원이고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플라즈마 부품 사업과 연관된 NEWPOWER CHINA, GEN CELL, (주)엔피에너지는 1Q26 기준 지분율이 모두 100.00%이며, 자산총액은 각각 111억원, 60억원, 5억원이다. 이들은 각각 중국 상하이에서 RPS 수리, 미국에서 마케팅 용역, 전라북도 익산에서 RPS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수원에서 진공장비를 제조하는 (주)엔피엠은 1Q26 기준 지분율 53.69%, 자산총액 48억원이며, 경기도 성남에서 창업투자업을 영위하는 (주)피엔피인베스트먼트는 지분율 51.28%, 자산총액 33억원이다.

뉴파워프라즈마 지분도



주1: 1Q26말 기준, 주2: (*)는 상장기업,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사업 및 매출 구성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용 RPS,
RFS, PPS가 주요 사업이며
자회사를 통해 방산 복합소재와
UTG 사업 영위 중**

동사의 주요 사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박막공정과 식각공정 장비에서 사용되는 RPS, RFS, PPS 등이 있다. 자회사 스페이스프로에서 복합소재, 도우인시스에서 UTG를 생산한다. 2025년 기준 매출 비중은 Cleaning System 19.7%, RFS 2.4%, 방산 48.9%, UTG 24.2%, 기타 4.8%를 기록하였다.

RPS (Remote Plasma Generator)

박막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F계열 Gas를 사용하여 Chamber 외부에서 Plasma를 발생시켜 Chamber내부에 Plasma Radical만 전달하여 Chamber내 부산물과 결합 후 배기(Exhaust)시켜서 Chamber의 Particle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RFS (Radio Frequency System)

Plasma 발생 전원장치 모듈(RF Generator 및 Matcher)로 박막 공정이나 건식각 공정장비의 Vacuum Chamber에 가스를 공급하여 Plasma를 발생하는데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모듈이다.

PPS (Plasma Pretreatment System)

공정 부산물 플라즈마 배기 처리 시스템이다. 반도체 ALD 증착 공정 이후 챔버 내 벽면과 마찬가지로 포라인(Fore-line)을 통해 연결된 펌프 내부에도 불순물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PPS를 챔버와 펌프 사이 배관에 위치해 플라즈마로 공정 가스 및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이를 통해 Fore-line Particle이 개선되고 펌프 수명 연장과 더불어 유지 정비 주기 연장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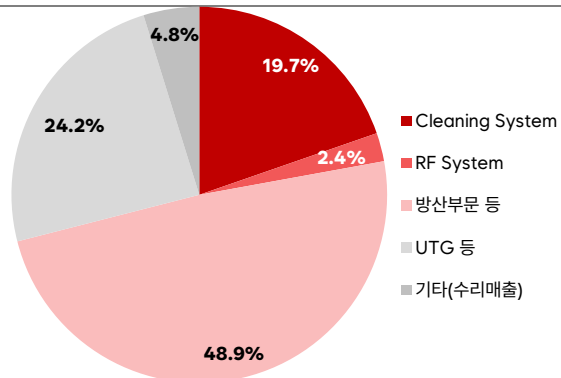
방산 (스페이스프로)

고성능 기동무기체계의 경량구조체, 방탄재, 초고온 내열재, 전자파 기능재료, 항공기 부품 및 유도무기, 발사관, 철도 차량 전두부, 플랜트 관로 등 다양한 산업용 복합소재를 생산한다.

UTG (도우인시스)

UTG(Ultra Thin Glass, 초박형 강화유리)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커버윈도우(cover window) 소재로 사용되는 초박형 유리이다. 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 패널에 주로 채택된다.

뉴파워프라즈마 매출 비중



주: 2025년 기준,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뉴파워프라즈마 주요 제품

RPS Remote Plasma Source	RFS Radio Frequency System	PPS Plasma Pretreatment System
박막 및 증착, 식각 공정 후 챔버내 부산물을 제거하는 모듈	플라즈마 발생에 필요한 고주파 전력 공급 장치	공정 가스 및 부산물을 처리해 챔버와 연결된 제품들의 수명 연장
RF Generator & Reactor	RF Generator Matcher	
반도체/디스플레이 Remote 세정장치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용 Source	반도체/디스플레이 CVD / 식각 공정	공정 부산물 플라즈마 배기 처리시스템

자료: 뉴파워프라즈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도우인시스 주요 제품

UTG	적용제품 ➔	6"급	7"급
		7"급	7"급

자료: 뉴파워프라즈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스페이스프로 주요 제품

에코모빌리티BU



우주방산BU



에코플랜트B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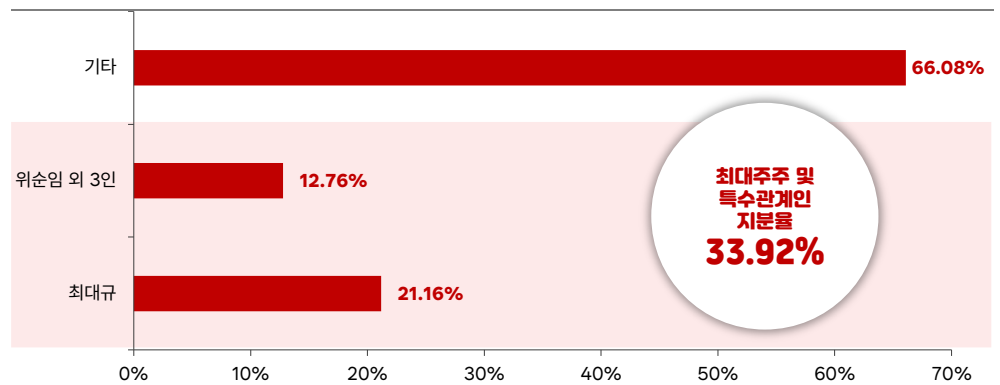
자료: 뉴파워프라즈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주 구성

최대주주는 최대규 회장으로
지분 21.16% 보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는 33.92%

1Q26말 기준 뉴파워프라즈마의 최대주주는 창업자인 최대규 회장으로 지분 21.16%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규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는 33.92%이다. 최대규 회장은 1993년 12월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를 목표로 뉴파워를 설립해 현재까지 회장으로서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2대주주는 공동창업자인 위순임 부회장으로 지분 11.96%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상무와 세메스 상무를 거쳐 2020년 6월 합류한 양재영 대표이사로, 2024년 8월 취임해 경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회사 지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뉴파워프라즈마 주주 현황



주: 1Q26말 기준,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글로벌 반도체 시장

AI 수요에 기반한 DRAM 공급 부족은 2027년까지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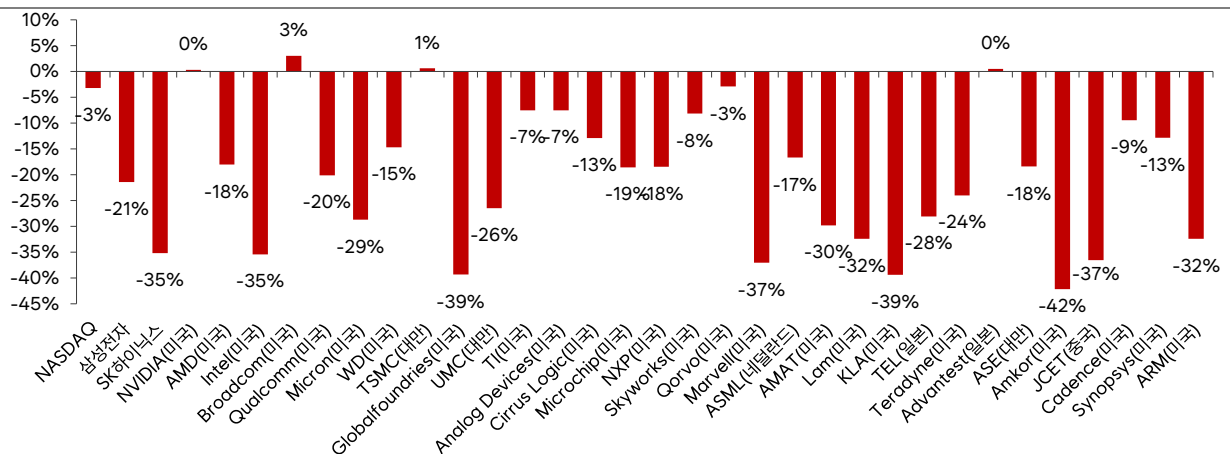
7월 한달 글로벌 반도체 주가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7월 31일 급반등을 보이며 삼성전자 -21.4%, SK하이닉스 -35.2%, Micron -28.7% 하락하였고, 6월 고점 대비 7월 저점은 -50% 이상으로 메모리 기업은 과거 다운 사이클에 준하는 하락을 단 한달간 기록했다. AMAT, Lam Research, TEL 등 장비 업체도 -29.8~39.4%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이는 연초부터 급등을 보인 반도체 주가 조정, AI CAPEX 축소 우려, CXMT 공급 확대 우려, 레버리지 ETF의 기계적 리밸런싱과 Situational Awareness의 강제 청산 등에 따른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들의 펀더멘탈과 전방 업황은 변하지 않았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도 메모리 수요 강세를 전망했다. Google, Amazon 등 주요 CSP 업체들 역시 2026년과 2027년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CAPEX를 집행할 계획을 밝혔다. 북미 빅테크 4사의 2026년 CAPEX 전망치는 +80.9% YoY로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고 2027년 역시 +37.7% YoY로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DRAM은 HBM CAPA 확대, 견조한 AI 서버 수요, CPU 메모리와 HBM 출하 증가로 공급 제약이 지속되고 가격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DRAM 공급 업체들은 신규 CAPA 투자를 통해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나 건설 일정, 장비 리드 타임 등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생산량 증가는 2028년이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HBM은 기존 DRAM 대비 더 많은 웨이퍼 투입량이 필요함으로 Wafer input이 비례적으로 Bit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2027년에도 DRAM은 극심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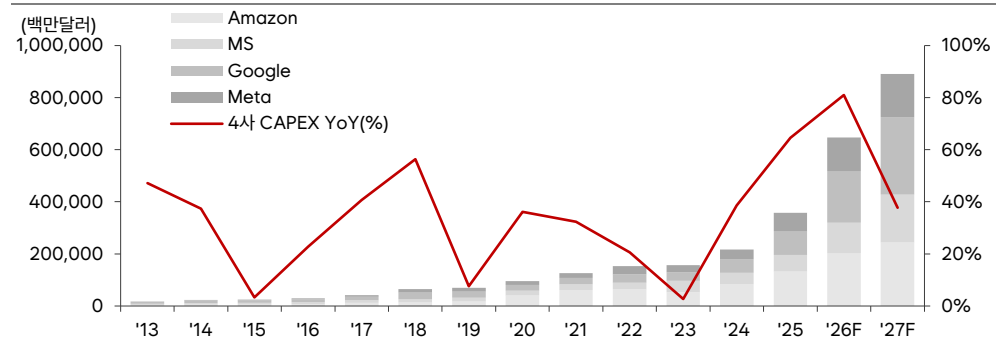
반면 AI 투자로 증가로 고용량 eSSD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NAND는 공급 업체들의 전환 투자를 통해 생산량을 확대 중이며 eSSD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NAND 고단화 전환 가속과 신규 Fab의 점진적 증설로 2027년 NAND의 공급 부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 7월 주가 수익률



자료: FnGuide, Refinitiv,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북미 Big Tech 연간 CAPEX 추이



자료: Refinitiv,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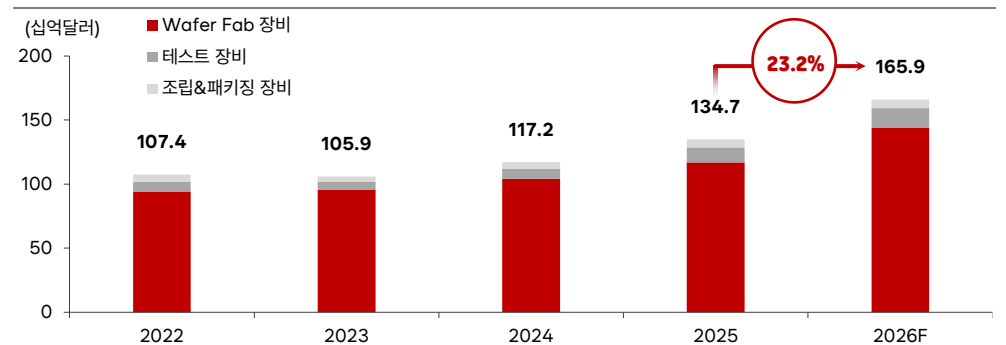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은 +23.2% YoY 성장한 1,659억 달러가 예상됨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은 전년대비 +23.2% 성장한 1,659억 달러가 예상된다. HBM 관련 DRAM과 선단 로직 반도체 투자가 주요 성장 요인이다. 전공정 장비는 반도체 업체들의 AI 수요 대응을 위한 CAPA 확대와 전환 투자로 +23.1% YoY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테스트 장비 역시 +31.0% 성장이 기대되며, 조립 및 패키징 장비는 +9.2% YoY 성장이 예상된다. 후공정 장비의 성장은 디바이스 복잡성 증가, 첨단 및 이중 패키징 도입, 그리고 AI 및 HBM 디바이스에 대한 더욱 엄격한 성능 및 신뢰성 요구 사항에 기인한다.

파운드리 및 로직 애플리케이션용 WFE 매출은 AI 가속기, 고성능 컴퓨팅 및 프리미엄 모바일 프로세서용 첨단 노드 생산 능력 확충에 힘입어 2026년 전년 대비 18.9% 증가한 7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nm 게이트올러라운드(GAA) 노드에서의 대량 생산으로의 전환에 따라 2027년 18.1%, 2028년 13.6% 성장하여 1,047억 달러로 성장이 기대된다.

메모리 관련 장비 지출은 HBM 수요 증가, DRAM 노드 기술 발전, NAND 기술 전환에 힘입어 2028년까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DRAM 장비 판매는 2026년 39.0% 증가한 388억 달러, 2027년 27.4% 증가한 494억 달러, 2028년 15.0% 증가한 5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NAND 장비 판매는 3D NAND 레이어 기술 발전과 고밀도 아키텍처 투자에 힘입어 2026년 30.7% 증가한 139억 달러, 2027년 31.1% 증가한 182억 달러, 2028년 14.5% 증가한 20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 전망



자료: SEMI,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패널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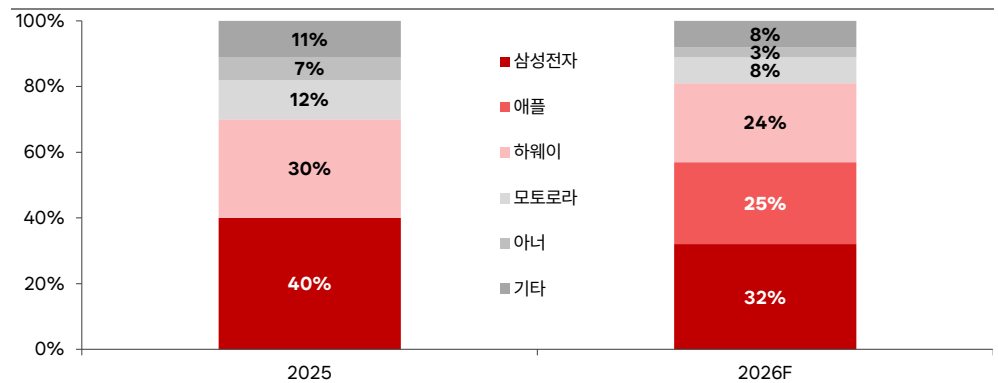
**폴더블 패널 시장은 신규 업체
진입에 따른 품팩터 다양화와
물량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 전망**

폴더블 스마트폰 패널 시장은 2025년의 조정 국면을 지나 2026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며, 출하량은 약 24% YoY, 매출액은 약 48% YoY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Apple과 같은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에 따른 품팩터 다양화와 물량 확대에 기인한다. Apple은 2026년 하반기 첫 폴더블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삼성전자 갤럭시Z폴드8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2026년 갤럭시 언팩에서 갤럭시Z폴드8, 갤럭시Z폴드8 울트라, 갤럭시Z플립8 등 3종의 신규 폴더블 제품을 공개했으며, 에이전틱 AI 기능과 듀얼 품팩터 전략이 삼성전자 폴더블 포트폴리오의 방향성을 재편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는 최근까지 신제품 3종의 연간 출하량 목표를 500만~600만대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600만대 내외 출하 실적과 비교하면 보수적인 수치이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등 부품 가격 인상에 따른 판가 상승 부담이 반영된 결과이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31%의 점유율로 폴더블 스마트폰 패널 구매량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Apple은 첫해에 폴더블 스마트폰 패널 구매량의 약 29%를, 화웨이는 약 2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pple이 당장 삼성과 화웨이를 제치지는 못하겠지만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경쟁 구도를 평균 판매가격, 신뢰성 향상, 그리고 접힘선이 적은 와이드 북형 폴더블폰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Apple과 삼성의 프로젝트가 하반기에 본격화됨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의 연간 시장 점유율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자료: Counterpoin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한국 방산 시장

한국 방위산업은 2025년 방산 수출 15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95억 달러 대비 +60.4% 증가하며 2022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 이후 반등하였다. 2026년에는 27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이 전망되는데 이는 유럽의 재무장 기조와 중동의 방공 수요 확대로 기존 베스트셀러 무기체계의 수출이 늘어나고, 여기에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양산 돌입과 유무인 복합체계로의 전환에 기인한다.

스페이스프로의 주요 고객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이러한 흐름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 스페이스프로가 케이스를 공급하는 천궁-II(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 국가항으로 누적 약 95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발사대와 차량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하고 있다. 최근 중동 분쟁에서 천궁-II의 요격 성공률이 96%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수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방산업체들의 수주잔고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한국 방산 수출 성장이 당분간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도체 미세화와 CAPA 투자로 플라즈마 수요 증가

**삼성전자 P4, SK하이닉스 M15X
등 국내외 DRAM 신규 투자
확대와 공정 미세화에 따른
RPS 수요 증가 예상**

DRAM 3사는 HBM과 범용 DRAM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사 장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2025년까지는 클린룸 공간 부족으로 후공정 투자 중심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신규 클린룸 확보를 바탕으로 전공정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삼성전자 P4, SK하이닉스 M15X가 신규 투자를 주도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Fab 16에서 DRAM 전환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P4는 HBM4 대응을 위한 DRAM 중심 투자로, Ph3향 장비 반입이 2025년 하반기 시작된 데 이어 Ph4, Ph2가 순차 입고된다. SK하이닉스 M15X도 4Q25부터 장비 입고가 개시됐으며, 투자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확대되어 연내 80K/월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027년에는 장기 수요에 선제 대응하려는 클린룸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며 2026년보다 확대된 장비 수요가 기대된다. 삼성전자 P5, SK하이닉스 Y1 Fab, 마이크론 ID1, PSMC Tongluo P5 등 신규 팹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NAND는 고단화 전환 투자를 통해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으나, 삼성전자 P5, 마이크론 싱가포르 신규 Fab과 같은 NAND 신규 투자는 2028년에야 장비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시차가 존재한다. 비메모리에서는 Intel이 Arizona Fab52에서 18A 공정 중심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TSMC는 대만 내 선단 공정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Arizona Fab향 하반기 장비 입고를 앞두고 있으며,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미국 Taylor Fab에서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다.

동사는 별도 기준 반도체향 매출 비중이 약 80%이며, 반도체 매출 중에서도 엔드 고객 기준 삼성전자향 비중이 높아 국내 메모리 CAPA 투자 사이클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삼성전자 P4, SK하이닉스 M15X를 시작으로 2027년 P5, Y1 Fab까지 이어지는 국내 DRAM 신규 투자 확대는 RPS 신규 발주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SK하이닉스향은 PPS(Plasma Pretreatment System) 위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RPS 대비 낙수효과는 제한적이다.

중국 메모리 업체의 증설 역시 동사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CXMT는 2026년 허페이 Fab 증설과 상하이 Fab 신규 투자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CXMT는 7월 중국 상하이 커칭반(STAR Market) 상장을 통해 약 579.2억위안(약 12.7조원)을 조달하였다. 조달 자금은 생산능력 확대와 첨단 공정 연구개발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약 172.3억 위안이 장비 투자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SMIC의 장비투자 비중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CXMT는 현재 허페이 200K/월, 베이징 100K/월 CAPA에서 상하이 Fab 50K/월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까지 총 550K/월 규모로 CAPA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하이 Fab은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원익IPS를 통해 CXMT에 RFS 제품을 공급하고 RPS는 중국 장비사로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는 2025년 약 450억 원(전체 매출액의 약 7.8% 수준)이 중국에서 발생한 만큼 CXMT의 증설 및 장비 투자 확대가 동사의 중국향 매출 추가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 미세화도 RPS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RPS는 증착, 식각 공정 후 챔버 내부에 남는 반응 가스 또는 Si 계열 잔류물과 같은 부산물을 F계열 가스를 플라즈마 상태로 변환해 SiF₄와 같은 기체 형태로 전환하고 제거하는 장비로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웨이퍼 표면의 미세 파티클이 수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챔버 클리닝의 정밀도와 빈도에 대한 요구가 함께 높아진다.

미세화에 따른 트랜지스터 고집적화로 선단 공정 비중이 확대되며 챔버 내 불순물 입자를 원자 단위까지 제거해야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 미세화 흐름에서 RPS 채용 필요성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또한 NAND 적층 수 증가와 DRAM의 선단 공정 전환 가속화로 ALD(원자층 증착)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ALD는 원자 단위의 고품질, 저온 증착을 필요로 하며 High-K 소재 채용이 늘면서 균일한 증착 환경을 만들어주는 RPS의 역할이 커진다.

미세화에 따라 습식 대비 정밀 제어가 가능한 건식(플라즈마) 식각 공정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건식 식각 스텝이 늘어날수록 챔버 내벽에 누적되는 반응 부산물의 양과 빈도도 함께 늘어나 세정 주기가 짧아진다. 즉 미세화는 공정 스텝당 RPS 사용 빈도(챔버당 클리닝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세화 전환에 따른 구조적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메모리 투자 전망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	4Q26	1Q27	2Q27	3Q27	4Q27	1Q28	2Q28	3Q28	4Q28
삼성전자																
P4	Ph1 (15K)			Ph3 (50K)			Ph4 (50K)		Ph2 (50K)							
P5											Ph1-2 (100K)		Ph3-5 (120K)			
P6															Clean room OPEN	
SK하이닉스																
M15X				(20K)		(60K)			(10K)							
Y1										Ph1-3 (150K)				Ph4-6 (120K)		
Y2															Clean room OPEN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해외 고객 매출 비중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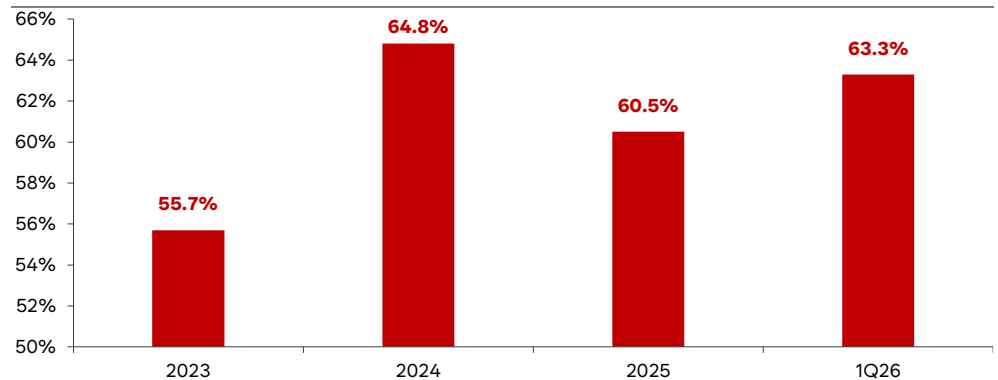
해외 매출 비중은 미국 반도체
장비사향 매출 증가로
2023년 44.3%에서
1Q26 63.3%까지 확대

동사는 해외 고객 다변화를 통해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 매출 비중은 2023년 44.3%에서 2026년 1분기 63.3%까지 확대됐는데, 이는 미국 반도체 장비사향 매출 증가에 기인한다. 2026년 매출의 상당 부분이 Applied Materials향에서 발생하고 있다. 동사는 Applied Materials로 디스플레이 RPS를 주로 공급해왔으며 최근에는 반도체 RPS 구매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RPS 시장은 미국의 MKS Instruments가 약 60%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RPS는 제품의 차별성 보다는 단가 및 고객 대응력이 구매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동사는 이런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 고객사내 점유율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RPS는 제품이 한 번 채택되면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 RPS는 플라즈마 노출에 따른 마모로 2~3년의 교체 주기를 보여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Applied Materials를 비롯한 해외 고객사 다변화는 안정적인 교체 수요의 확대를 의미한다.

또한 동사는 RFS 시장으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RFS는 RPS 시장 대비 약 10배 큰 규모로 파악된다. 동사가 디스플레이 RFS 시장에서 1위인 반면 반도체 RFS 시장은 Advanced Energy가 시장 점유율 1위 지위를 보이고 있고 동사의 반도체용 RFS 매출은 아직 미미하다. 하지만 중국 메모리 업체용으로 RFS를 공급하는 등 최근 동사는 반도체 시장으로 RFS 공급 확대를 꾀하고 있어, 향후 시장 진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매출원 다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매출 비중 추이



자료: 뉴파워프라즈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성장으로 도우인시스 수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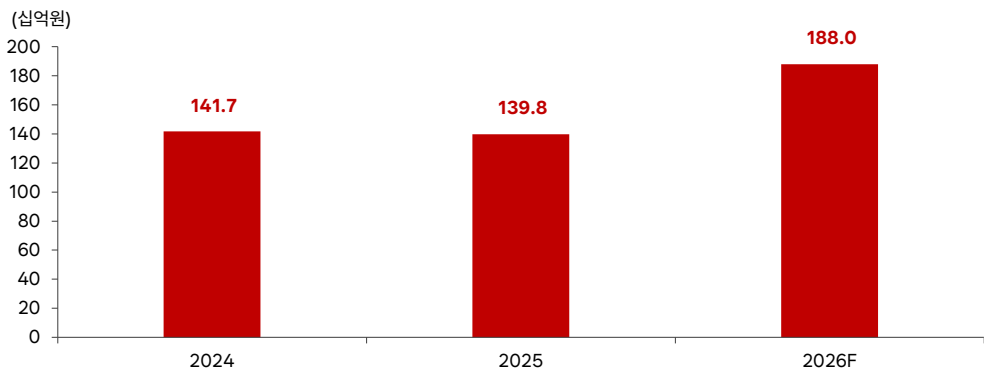
**폴더블 라인업 확대와 주요
고객사의 패널 외판 증가로
도우인시스 UTG 매출 성장 기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따른 자회사 도우인시스의 성장이 기대된다.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의 폴더블 신제품 출시로 시장 전체의 물량과 판가가 동반 상승하는 구간에 진입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지난 7월 22일 런던 언팩에서 Z Fold8, Z Fold8 Ultra, Z Flip8 등 3종 라인업을 공개하며 대응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삼성 Z Fold8과 유사한 폼팩터의 폴더블 신제품을 출시하는 업체가 추가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 전체의 외형 확대가 기대된다.

동사가 2024년 2월에 인수한 도우인시스는 UTG 커버글라스 전문기업으로, Galaxy Z Fold2부터 Fold7까지 북타입(Book-type) 폴더블용 UTG를 전량 단독 공급해온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2025년 매출액은 1,398억원(-1.4% YoY), 영업이익은 34억원(-65.1% YoY)으로 이익 측면에서 부진했는데, 이는 갤럭시 Z 폴드7 자체의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용 수요 부진과 2024년 있었던 일회성 이익 효과의 소멸이 겹친 영향으로 파악된다.

2026년은 삼성전자의 폴더블 라인업이 기존 2종에서 Z Fold8, Z Fold8 Ultra, Z Flip8 3종으로 확대되고 삼성디스플레이의 폴더블 OLED 패널용 물량이 삼성전자 외 고객으로 확대되면서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2027년에는 삼성전자 외 글로벌 고객사향 직납 가능성도 판단된다. 특히 신공장 증설 라인은 향후 UTG 신규 고객 및 물량확대 대응을 위한 선제적 투자이다. 글로벌 고객사 확보시 매출 성장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UTG 부문 매출액 전망



자료: 뉴파워프라즈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 매출액 확대에도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었던 2025년

2025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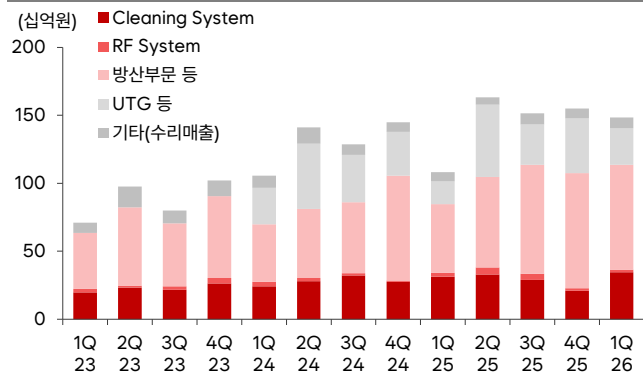
5,780억원(+11.2% YoY),

영업이익 287억원(+9.7% YoY)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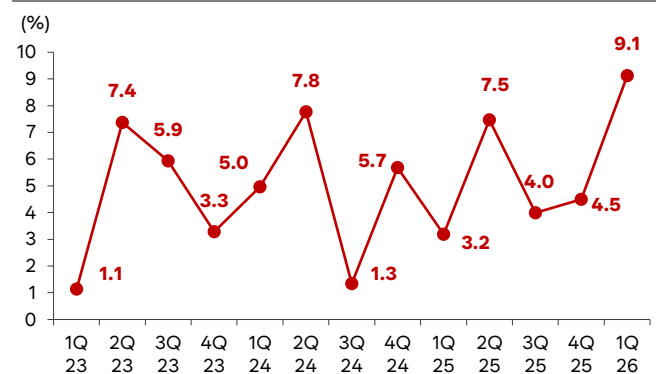
2025년 동사는 매출액 5,780억원(+11.2% YoY), 영업이익 287억원(+9.7% YoY)을 기록하였다. 주요 부문별 매출액은 Cleaning System 1,138억원(+1.6% YoY), 방산 2,825억원(+26.9% YoY), UTG 1,398억원(-1.4% YoY)을 기록하였다. 반도체 장비는 해외 매출 비중이 60.5%의 견조세가 유지되었다. 이는 2023년 하반기 이후 이어져 온 구조적 흐름이다.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로 경쟁사인 미국 업체들의 중국 로컬 기업향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동사는 2023년 하반기부터 중국 로컬 반도체 기업향 RPS 공급을 확대해왔다. 2025년에도 중국 장비사 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자회사 스페이스프로는 방산 업황 호조로 매출액 성장을 보였으며, 자회사 도우인시스는 갤럭시 Z 폴드7 자체의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향 수요 부진 영향으로 매출액이 소폭 감소하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출액 증가에도 전년 수준인 OPM 5%로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이었다. 반도체 수요 증가로 뉴파워프라즈마의 OPM이 9.0%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스페이스프로는 방산 중심의 매출액 확대로 방산부문의 수익성은 4.1%에서 5.0%로 개선되었으나, 기타 사업부문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며 전체 OPM은 4.0%에 그쳤다. 또한 도우인시스는 매출액 감소와 더불어 판가 하락이 이루어지며 수익성이 전년대비 축소된 OPM 2.4%를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자회사들의 낮은 수익성이 반도체 부문의 양호한 수익성을 희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뉴파워프라즈마 부문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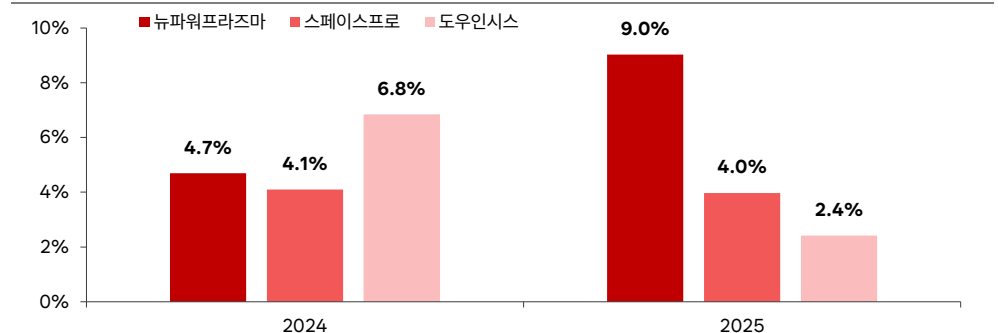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뉴파워프라즈마 분기별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뉴파워프라즈마 별도 및 자회사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상 최대 실적 기대되는 2026년

2026년 매출액

7,055억원(+22.1%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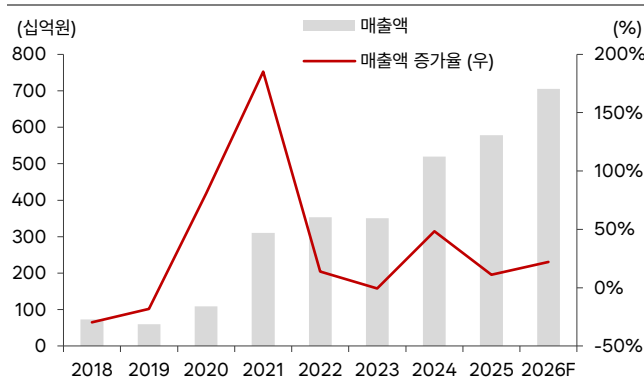
영업이익

682억원(+137.8% YoY)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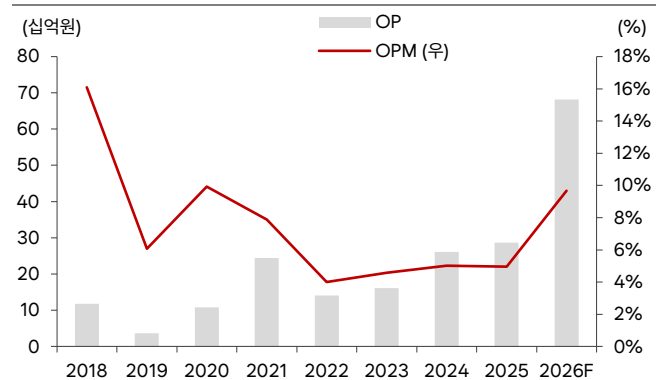
2026년 동사의 실적은 매출액 7,055억원(+22.1% YoY), 영업이익 682억원(+137.8% YoY)을 전망한다. 부문별로는 반도체 및 기타 1,974억원(+29.6% YoY), 방산 3,201억원(+13.3% YoY), UTG 1,880억원(+34.5% YoY)을 예상한다. 반도체 고객사들의 CAPA 투자와 반도체 공정 미세화 및 선단 공정 비중 확대에 따른 플라즈마 수요 증가로 RPS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동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특히 북미 장비 고객사의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고객 다변화에 긍정적이다. 실제로 Applied Materials를 비롯한 해외 고객사 매출 확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1Q26 실적은 매출액 1,485억원(+37.3% YoY, -4.3% QoQ), 영업이익 135억원(+293.1% YoY, +94.2% QoQ)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뉴파워프라즈마가 43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5.1% 매출액이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하였고 1분기 해외 매출액 비중도 63.3%로 확대되었다. 국내 및 해외 반도체 Fab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결 자회사 역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스페이스프로는 방산 시장 성장에 따라 복합소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우인시스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주요 고객사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외판 확대로 매출액 확대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스페이스프로의 수익성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반도체 매출 확대와 도우인시스의 실적 개선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로 전년 대비 개선된 OPM 9.7%(+4.7%p YoY)을 예상한다.

뉴파워프라즈마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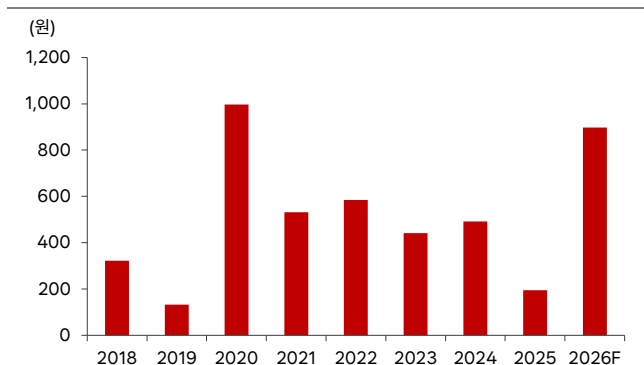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뉴파워프라즈마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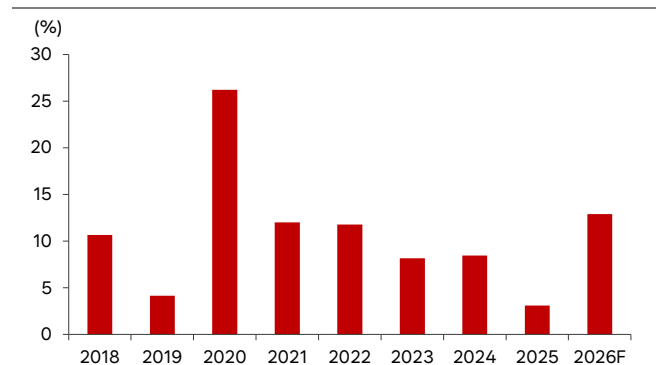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뉴파워프라즈마 EPS 추이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뉴파워프라즈마 ROE 추이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뉴파워프라즈마 부문별 실적

(단위: 십억원)

	1Q23	2Q23	3Q23	4Q23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71.1	97.5	79.9	102.2	105.5	141.0	128.6	144.8	108.2	163.3	151.4	155.1	148.5	350.7	519.8	578.0	705.5
Cleaning System	19.8	23.1	21.7	26.2	24.3	28.0	32.1	27.6	31.2	33.0	28.8	20.9	34.5	90.8	112.0	113.8	148.4
RF System	2.4	1.4	2.6	4.1	3.2	2.4	1.7	0.9	2.8	5.0	4.5	1.8	1.8	10.4	8.2	14.1	15.8
방산부문 등	41.3	57.8	46.3	60.3	42.5	50.7	52.3	77.1	50.7	66.6	80.3	84.9	77.2	205.7	222.6	282.5	320.1
UTG 등	-	-	-	-	26.7	47.9	34.8	32.3	16.6	53.2	29.8	40.2	26.8	-	141.7	139.8	188.0
기타(수리매출)	7.6	15.2	9.4	11.6	8.9	12.0	7.7	6.9	6.8	5.5	8.0	7.4	8.1	43.8	35.4	27.7	33.2
영업이익	0.8	7.2	4.7	3.4	5.2	11.0	1.7	8.2	3.4	12.2	6.0	7.0	13.5	16.1	26.1	28.7	68.2
지배주주순이익	2.0	6.8	2.8	7.6	2.6	8.7	-0.4	10.6	3.3	2.9	6.8	-4.5	11.9	19.3	21.5	8.5	39.2
Margin(%)																	
영업이익률	1.1	7.4	5.9	3.3	5.0	7.8	1.3	5.7	3.2	7.5	4.0	4.5	9.1	4.6	5.0	5.0	9.7
지배주주순이익률	2.8	7.0	3.5	7.5	2.4	6.1	-0.3	7.3	3.1	1.8	4.5	-2.9	8.0	5.5	4.1	1.5	5.6
YoYGrowth(%)																	
매출액	-1.9	14.7	1.7	-12.6	48.4	44.6	61.0	41.7	2.5	15.8	17.7	7.1	37.3	-0.6	48.2	11.2	22.1
Cleaning System	9.0	13.5	8.5	11.0	22.8	21.1	48.4	5.3	28.5	17.8	-10.5	-24.3	10.8	10.6	23.4	1.6	30.4
RF System	-45.0	-68.2	-36.9	-2.6	33.1	66.6	-35.3	-77.1	-11.8	111.6	174.5	90.2	-34.8	-38.8	-21.9	73.5	12.0
방산부문 등	5.4	27.3	11.5	-16.1	2.9	-12.2	13.0	27.8	19.4	31.3	53.6	10.1	52.3	3.9	8.2	26.9	13.3
UTG 등	-45.0	-68.2	-36.9	-2.6	33.1	66.6	-35.3	-77.1	-11.8	111.6	174.5	90.2	-34.8	-	-	-1.4	34.5
기타(수리매출)	-28.9	2.5	-28.0	-32.4	16.4	-21.2	-18.3	-40.7	-23.2	-53.9	4.6	7.5	18.6	-21.4	-19.2	-21.6	19.5
영업이익	-80.8	114.0	397.2	-40.1	548.1	52.3	-63.8	145.4	-34.2	11.4	252.3	-15.2	293.1	13.9	62.4	9.7	137.8
지배주주순이익	-60.4	19.0	-81.2	흑전	29.6	26.7	적전	38.5	29.6	-66.6	흑전	적전	256.4	-24.6	11.4	-60.3	360.1
QoQGrowth(%)																	
매출액	-39.2	37.2	-18.1	27.9	3.3	33.7	-8.8	12.6	-25.3	51.0	-7.3	2.5	-4.3				
Cleaning System	-16.2	17.1	-6.4	20.9	-7.4	15.5	14.8	-14.2	13.1	5.8	-12.8	-27.4	65.4				
RF System	-42.2	-40.9	79.9	58.4	-21.0	-26.0	-30.1	-44.1	205.0	77.5	-9.3	-61.3	4.5				
방산부문 등	-42.6	40.0	-19.9	30.4	-29.6	19.5	3.0	47.5	-34.2	31.4	20.4	5.8	-9.0				
UTG 등	-42.2	-40.9	79.9	58.4	-21.0	-26.0	-30.1	-44.1	205.0	77.5	-9.3	-61.3	4.5				
기타	-55.6	99.3	-38.2	23.6	-23.5	34.9	-35.9	-10.4	-0.8	-19.1	45.4	-7.9	9.4				
영업이익	-85.6	790.5	-34.1	-29.3	56.2	109.3	-84.3	379.1	-58.1	254.1	-50.4	15.3	94.2				
지배주주순이익	흑전	243.4	-59.1	173.0	-66.2	235.7	적전	흑전	-68.4	-13.6	133.6	적전	흑전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2026F PER 11.8x

2026F PER 11.8x로 Peer 평균 18.8x 대비 할인되어 거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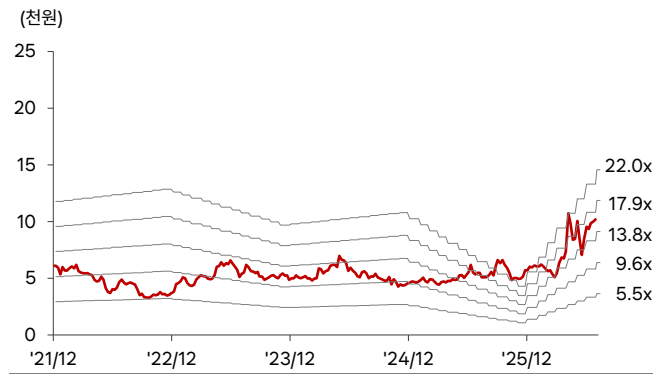
동사의 현재주는 2026F PER 11.8x로 Historical PER Band(5.5x~22.0x) 중단에 위치해 있다. Peer 업체로는 국내외 공정 유틸리티 장비 업체들을 선정하였다. Peer 평균 2026F PER은 18.8x 수준이다. 해외 Peer로는 MKS(미국)와 Advanced Energy Industries(미국)를 선정하였다. MKS는 글로벌 RPS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동사와 가장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 Advanced Energy Industries는 반도체 RFS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향후 동사의 RFS 시장 확대에 따른 경쟁이 예상된다. 해외 Peer 평균 2026F PER은 26.3x로 동사 대비 높은 Valuation을 보이고 있다. 두 업체의 동사 대비 큰 매출액 규모 및 높은 수익성, 전방 고객사의 다양성 등이 높은 Valuation의 이유로 판단된다. 국내 Peer로는 엘오티베콤, GST, 유니셀을 선정하였다. 엘오티베콤은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업체이며 GST와 유니셀은 스크러버와 칠러 업체이다. 세 업체는 팹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가스를 처리하는 유틸리티 성격의 장비라는 점에서 동사와 유사점이 있다. 국내 Peer 평균 2026F PER은 11.3x 수준(엘오티베콤 제외)으로 동사와 유사한 수준이다. 동사는 국내 메모리 고객사뿐 아니라 해외 장비사, 중국 메모리 업체 등으로 고객 다변화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RFS, PPS 등으로 장비 다변화를 시도 중이다. 특히 RFS 시장 안착 시 글로벌 Peer와의 Valuation Gap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결 실적 측면에서는 자회사의 본사 대비 저수익성은 Valuation Discount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현재 방산 업황 호조가 지속되고 도우인시스의 성장 기대감이 현실화될 경우 오히려 리레이팅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기업명	종가 (원, 달러)	시가총액 (십억원, 백만달러)	매출액(십억원, 백만달러)			PER(배)			PBR(배)		
			2024	2025	2026F	2024	2025	2026F	2024	2025	2026F
코스피	6,258.77	4,995,319	3,712,325	3,917,205	4,094,117	11.3	15.4	6.2	0.8	1.3	1.5
코스닥	798.81	439,154	332,644	361,445	128,523	211.4	112.4	22.8	1.5	2.1	2.6
뉴파워프라즈마	10,580	462	520	578	706	9.0	26.5	11.8	0.7	0.8	1.4
엘오티베콤	8,230	146.58	266	245	-	89.7	-	-	0.5	0.8	-
유니셀	7,510	230.29	218	273	346	11.6	33.0	8.6	0.8	1.2	0.8
GST	48,600	895.70	333	347	446	6.9	11.7	14.0	1.2	1.7	2.5
MKS(미국)	305	20,623	3,586	3,931	4,816	37.1	36.7	23.7	3.0	4.0	6.4
Advanced Energy(미국)	325	13,017	1,482	1,799	2,410	77.7	54.1	28.9	3.6	5.8	7.9
동종업종 평균						44.6	33.9	18.8	1.8	2.7	4.4

주: 1) 2026년 08월 07일 종가 기준, 2) 동종그룹 26F는 시장 컨센서스 사용, 3) 엘오티베콤은 컨센서스 없음. 자료: FrGuide QuantWise, Refinitiv,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뉴파워프라즈마 PER Band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뉴파워프라즈마 PBR Band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고객사 CAPA 투자 둔화와 RF 시장 확대 지연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 요인

고객사 투자 둔화 및 RF 시장 확대 지연

동사의 리스크는 고객사 CAPA 둔화, RF 시장 확대 지연 가능성 등이다. 다른 반도체 장비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동사 역시 고객사의 CAPA 축소시 장비 수요 감소를 피하기는 어렵다. 다만 동사의 경우 소모성 장비로 지속적인 교체 수요가 발생함으로 공정 장비 대비 변동성은 작다. 현재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AI 수요 대응을 위한 CAPA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팹 투자 축소에 따른 다운 사이드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RPS보다 시장 규모가 큰 RF 시장 진출은 동사 외형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동사는 RF Generator와 Matcher로 구성된 RFS 장비군을 통해 해당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다만 RFS 시장은 RPS 대비 시장 참여자가 다수 존재하며 경쟁이 치열하다. 반도체용 RFS 매출이 아직 중국 고객사향 공급 중심의 초기 단계인 만큼, 주요 고객사로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신규 매출원 확보에 따른 외형 성장 기대가 후퇴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3,529	3,507	5,198	5,780	7,055
증가율(%)	13.8	-0.6	48.2	11.2	22.1
매출원가	2,696	2,634	3,884	4,342	5,200
매출원가율(%)	76.4	75.1	74.7	75.1	73.7
매출총이익	833	873	1,315	1,438	1,855
매출이익률(%)	23.6	24.9	25.3	24.9	26.3
판매관리비	692	712	1,054	1,151	1,174
판매비율(%)	19.6	20.3	20.3	19.9	16.6
EBITDA	306	345	725	790	1,146
EBITDA 이익률(%)	8.7	9.8	13.9	13.7	16.2
증가율(%)	-22.6	12.8	109.9	9.0	45.1
영업이익	141	161	261	287	682
영업이익률(%)	4.0	4.6	5.0	5.0	9.7
증가율(%)	-42.3	13.9	62.4	9.7	137.8
영업외손익	147	61	65	-182	-90
금융수익	70	160	246	113	73
금융비용	178	99	201	214	155
기타영업외손익	255	0	20	-81	-8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289	222	326	105	592
증가율(%)	-19.3	-23.0	46.8	-67.8	464.0
법인세비용	86	60	103	29	130
계속사업이익	203	163	223	76	461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03	163	223	76	461
당기순이익률(%)	5.7	4.6	4.3	1.3	6.5
증가율(%)	-25.8	-19.7	37.0	-65.9	506.8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256	193	215	85	392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57	329	632	98	491
당기순이익	203	163	223	76	461
유형자산 상각비	146	165	371	407	429
무형자산 상각비	19	20	93	96	36
외환손익	7	2	0	27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92	117	-8	-573	-414
기타	-110	-138	-47	65	-2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19	191	-1,088	-380	-427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77	99	-30	63	-13
유형자산의 감소	8	9	46	21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376	-219	-422	-434	-420
기타	-128	302	-682	-30	6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82	-291	215	717	-118
차입금의 증가(감소)	-37	-222	327	394	-97
사채의증가(감소)	435	0	-94	-103	0
자본의 증가	15	0	0	0	0
배당금	-21	-21	-20	-20	-20
기타	-10	-48	2	446	-1
기타현금흐름	-2	1	19	-3	2
현금의증가(감소)	318	229	-222	432	-52
기초현금	379	697	925	703	1,136
기말현금	697	925	703	1,136	1,084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3,058	3,036	3,691	4,174	4,632
현금성자산	697	925	703	1,136	1,084
단기투자자산	489	81	149	78	91
매출채권	530	476	685	708	850
재고자산	742	836	1,047	1,280	1,420
기타유동자산	600	718	1,107	973	1,188
비유동자산	3,275	3,701	5,727	5,737	5,706
유형자산	2,193	2,796	4,007	3,820	3,811
무형자산	153	148	1,096	957	922
투자자산	283	325	173	207	220
기타비유동자산	646	432	451	753	753
자산총계	6,333	6,736	9,418	9,911	10,338
유동부채	2,572	3,294	4,321	4,201	4,454
단기차입금	176	691	968	1,518	1,718
매입채무	305	291	378	327	430
기타유동부채	2,091	2,312	2,975	2,356	2,306
비유동부채	1,101	670	1,302	1,406	1,138
사채	421	430	0	300	300
장기차입금	632	183	994	941	641
기타비유동부채	48	57	308	165	197
부채총계	3,674	3,964	5,622	5,606	5,592
자배주주지분	2,295	2,431	2,639	2,856	3,228
자본금	44	44	44	44	44
자본잉여금	573	574	594	763	763
자본조정 등	-103	-141	-141	-141	-141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16	-0	-0
이익잉여금	1,782	1,954	2,126	2,190	2,562
자본총계	2,659	2,772	3,796	4,305	4,746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6.1	11.9	9.0	26.5	11.8
P/B(배)	0.7	0.9	0.7	0.8	1.4
P/S(배)	0.4	0.7	0.4	0.4	0.7
EV/EBITDA(배)	8.5	10.2	6.7	6.9	6.8
배당수익률(%)	1.4	1.0	1.1	1.0	0.5
EPS(원)	585	441	491	195	898
BPS(원)	5,254	5,564	6,039	6,536	7,387
SPS(원)	8,076	8,026	11,898	13,229	16,147
DPS(원)	50	50	50	50	50
수익성(%)					
ROE	11.8	8.2	8.5	3.1	12.9
ROA	3.5	2.5	2.8	0.8	4.6
ROIC	1.7	4.8	5.6	3.3	10.1
안정성(%)					
유동비율	118.9	92.2	85.4	99.4	104.0
부채비율	138.2	143.0	148.1	130.2	117.8
순차입금비율	25.7	32.0	46.9	39.6	34.7
이자보상배율	2.7	2.0	1.8	2.3	5.4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6	0.5	0.6	0.6	0.7
매출채권회전율	7.3	7.0	9.0	8.3	9.1
재고자산회전율	4.9	4.4	5.5	5.0	5.2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뉴파워프라즈마	O	X	X

2026년 5월 15일 기준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 2026년 6월 15일 매매관여과다에 따른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8.11	뉴파워프라즈마-국내를 넘어 해외가 이끄는 성장
2023.08.08	뉴파워프라즈마-플라즈마로 중국 공략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의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